

III. 577 B.C.-571 B.C.-- 7년간의 광인(Lycanthropy)¹⁾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을 살피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 '왕중 왕'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군주는 이렇게 자랑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 4 : 30. 그 순간 나무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그 자체가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바빌론 왕은 미쳐버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 4 : 33). 그의 광기는 7년 동안 계속되었고(다니엘 4:32) 그 후 그는 영광을 가져 높은 자에게 돌렸다(다니엘 4:34-37). 아버지가 미쳐있던 3년 동안 벨사살은 왕국을 다스렸고 균형을 위해 처남인 다리오가 통치했다. 왕은 기원전 571년에 제정신을 찾았다.



A. 천문학과 요세푸스

역사에서 그 7년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수수께끼였다. 첫 번째로 누락된 퍼즐의 부분은 요세푸스의 진술인데, 그에 따르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측과 그 이행 사이에 408년이 걸린다고 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슬루월 25일 토요일에 신성을 모독했다(*유대고대사* XII. v. 5). 이 음력 날짜는 기원전 167년에 일어났다. 기원전 575년 전보다 408년이 이르다. This lunar date took place in 167 B. C. 408 years earlier is 575 B.C.(도해 XI를 보라). 다니엘 8장은 벨사살 3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첫 번째 해가 히브리식으로 치면 577년이 될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4장 pp83-89참고

것이다. 첫 번째 해가 577년이고 느부갓네살이 7년을 포함하면 그는 571년에 돌아 온 것이다. 아스티아게스는 기원전 575년에 메디아의 왕이 되었고 따라서 벨사살은 기원전 574년에 죽었을 것이고, 메디아사람 아스티아게스는 메디아사람 다리오였음이 분명하다.

B. 577 B.C.-574 B.C.-- 바빌론을 통치하는 벨사살

벨사살 원년에 예언자 다니엘은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다니엘 7:2-28).¹⁾ 그는 벨사살 3년에 또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는 이 환상은 다니엘 8:2-27에 기록되어 있다.²⁾

그 후 벨사살 4년, 지금의 연구가 아스티아게스라고 밝힌 메디아사람 다리오에게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 몰락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 5:1-31의 성서 본문에 나와 있다.

바빌론 왕은 불운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신전 예배를 위해 한 때 따로 마련해 두었던 성스러운 금은그릇으로 와인을 마셨다(다니엘 5:3). 갑자기 히브리 신들이 판단하여 말했다. 연회장에는 하얀 석고 위에 그들이 비문을 쓰면서 손가락들이 보였다.

이는 벨사살을 겁먹게 했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불러 그들은 그 이상한 필적을 해독할 수 없었다. 다니엘에게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왕대비는 그에게 이 신비한 글을 읽고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다니엘은 보상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며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이 주에 의해 낮춰지게 된 현재의 방식을 상기시켰다(다니엘 5:17-21). 그러나 벨사살은 신이 느부갓네살과 한 거래에 대한 지식으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였다(다니엘 5:22-23).

예언자는 궁전의 벽에 적힌 글들을 읽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와 같다),” 다니엘 5:25. 이 셈어들은 ‘마나, 마나, 세켈, 반세켈’과 같이 무게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단어들을 ‘매겨진, 매겨진, 무게를 달아 나뉘어진’ 과 같이 동사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 비문의 해석은 벨사살 왕국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알았다. 그의 왕국은 페레스라는 단어(바르신의 단수형)바빌로니아 제국을 대체하는 것이었던 페르시아제국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주목한다.

바로 그날 밤 메디아 군이 바빌론 성읍으로 들어갔다.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신(新)바빌로니아 제국은 막을 내렸다(다니엘 5:30). 하지만 바빌론 성읍은 파괴되지 않았다,

왕대비가 느부갓네살의 아내고 벨사살의 어머니라는 것에 주목하라(다니엘 5:10-11). 아람 언어로 되어 있는 성서 문헌은 일부 학자들의 제안대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두 번 알려준다(다니엘

5:10, 18), 그 내용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단어는 그 자연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니엘 5장의 통찰은 벨사살이 비문을 해독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 금 사슬과 셋째 통치자의 지위라는 세 가지 상을 내렸다는 것이다(다니엘 5:29). 왜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로 불렸는가? 답은 다니엘이 거대한 나무 꿈에서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바빌론의 첫 번째 통치자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 4:26. 따라서 벨사살은 지휘에 있어 2인자였고 공동 섭정자였던 반면 다니엘은 그의 해석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

C. 바빌론을 통치하는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는 기원전 574년부터 기원전 571년까지 3년간 혹은 4년에 걸쳐 통치했다. 그는 바빌론을 통치하던 2인자로 여겨지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그의 누이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다음 해에 180일 간의 큰 연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명망을 누렸을 것이다(에스더 1).

IV. 벨사살 대 벨사살

이 주제의 연대기적 세부사항은 2장 서론에서 다룬다. 현재의 연구는 바빌로니아 역사에 두 명의 벨사살이 있었다고 여긴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인이며 두 번째는 나부나이드(나보니두스)의 아들로 느부갓네살과 관련이 없는 시리아인이다.

도해 XI: 바빌로니아 역사상 두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다니엘 5 바루크 1:11-12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나보니두스 연대기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
--	---

A. 느부갓네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성서 다니엘 5:11, 18 에 언급되어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또한 그는 바루크 1:11-12에서도 언급된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기도하라 마치 하늘의 날들이 영속되는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그들의 날들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오랜 봉사로 그들의 환심을 얻기를 기도하라 (예루살렘 성서)

바루크서의 내용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의 동시대에 공동섭정권 아래 통치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바루크서는 다음과 같은 연대기적 언급으로 연대가 추정된다. "이 책은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살라 버린 지 오 년째 되던 해 바로 그달 칠일에 기록된 것이다" 바루크 1:2. 그 날짜는 기원전 582년으로 느부갓네살의 광기 5년 전의 일이다.

히브리 기원을 가진 바루크서는 후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70인역에 배치되었다. 그 책은 흩어져있는 히브리 공동체들과 그들의 종교적 삶이 지속된 방법들, 즉 예루살렘과의 접촉, 기도, 법에 대한 헌신, 응징에 대한 갈증과 메시아의 희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사이의 공동통치를 내포하기도 한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는 또 다른 암시는

바빌로니아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다니엘을 고쳐부른 그 군주에게 내포되어 있다(다니엘 1:7; 2:26; 5:12).

아마도 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미디어 사람 다리오에 의해 바빌론이 지배를 받은 것과 고레스 대제에 의해 바빌론이 사로잡힌 것을 동일 사건으로 식별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같은 사건이 아니라 35년으로 분리된 두 가지 사건이다.

벨사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미드라쉬 랍바(아가 III. 4,2)는 다리오가 고레스 전에 통치할 것이라고도 알려주고 있다.

...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다니엘. V, 1) ... 희망의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ib.): 구원이자 내 영혼이 갈구하던 서광이 떨림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ib.5): 그들이 축제판을 차렸다. 그들이 등을 켜고 (ib.): 그들이 등잔불을 올리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ib.): 이들은 고레스와 다리오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ib.): 즉, 왕국을 점령하라.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보다 먼저 다스려라”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말했다.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베레스; 그대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 되었다 함이니이다” 미디어가 먼저이고 그 후에 페르시아임을? 이는 그대가 나보다 먼저 군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사살은 이 말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 ‘나에게 반역한 모든 민족과 정부에 대항하여 진군하라’고 말하였다. 거룩한 분이시여, 그에게 복이 있길, 그에게: ‘가엾은 이여, 그대는 다른 모든 이에게 보냈던가 아니면 나에게 보냈던가? 그대의 처벌이 나에게서만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하길,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편. LXXV, 7f.); 그는 벨사살을 낮추고 고레스와 다리오를 추켜세웠다. 고레스와 다리오는 벨사살의 문지기였다. 그가 그가 설명한 글을 듣고 그가 말하길 ‘누구든지 여기에서 밤을 새워라, 그가 그대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의 머리를 베어라’ 이제 왕들이 방 안이 아니라 바깥에 그들의 화장실을 두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다. 그날 밤 내내 그는 설사를 했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동안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가 다시 들어오자 할 때에 그들은 알아차렸다. “넌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그가 답했다. ‘나는 왕이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오늘 밤 “내가 왕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은 왕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들은 가서 촛대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부수었고, 그것은 이렇게 쓰여 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다니엘. V, 30).³⁾

볼 수 있듯, 고레스와 다리오는 그 날 벨사살의 문지기였다는 것이 히브리 전통이다.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다니엘 5:31. 또한 다리오가 고레스보다 먼저 통치를 한 것도 히브리 전통일 것이며⁴⁾ 미디어가 페르시아보다 먼저 바빌론을 지배한 것도 히브리 전통일 것이다.

미드라쉬 랍바의 진술은 본 연구가 재구성한 바빌로니아 역사와 일치한다. 미디어사람 다리오의 실체가 3장에서 밝혀질 때, 그 또한 느부갓네살의 ‘처남’이라는 점이 지적될 것이다. 다니엘 5에 따르면, 메데스와 바빌로니아인 사이에는 권력 투쟁도, 전쟁도, 포위도, 바빌론의 파괴도 없었으며 다만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과

처남인 미디어사람 다리오 사이에 정부 지도력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미드라쉬 랍바의 전통이 옳다면 벨사살은 미디어사람 다리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궁전 경비대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다.

벨사살이 죽자,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대왕비는 느부갓네살의 광기가 3년이 더 남아 있는 동안 그녀의 남자형제에게 바빌론 왕국을 다스리라고 청하였다.

미디어사람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3장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낭광이라는 병으로부터 벗어나자 바빌론의 통치는 미디어사람 다리오에 의해 그의 매형인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졌다. 이 점은 다니엘의 거대한 나무 예언 이론이기도 하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 4:24-28

성서 상의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는 말은 왕의 처남인 미디어사람 다리오의 통치로 확실히 이행되었다. 그러나 고레스가 이 당시의 지배자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B. 나보니두스의 아들

바빌로니아 역사상 두 번째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현대 바빌로니아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장자였으며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군주인 나보니두스의 공동 섭정자였다. 이 벨사살은 바빌로니아 연대기 중 나보니두스 연대기에서 '황태자'로 불린다(연대기 7). 나보니두스 통치 제 7년, 9년, 10년, 11년에 왕자와 관리들 그리고 군대가 아카드에 있는 동안 왕은 Terna에 있었다고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다.

왕의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해에 대한 이러한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보충된다. '왕은 니산 월의 의식으로 바빌론에 오지 않았다, Nabu는 바빌론에 오지 않았다, Bel은 열을지어 예사길라에서 나가지 않았다, 신년축제는 생략되었다.' 이는 언급된 해 동안 나부나이드는 Terna에, 벨사살은 바빌론에 있었고 나부나이드의 부재로 인해 통상의 신년축제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벨사살은 실제로 바빌론에서 공동 섭정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나보니두스 아홉 번째 해에서 인용한 것이다.

10 아홉째 해: 왕자, 관료들(과) 군대(가) 아카드에 있는 동안 왕, 나보니두스는 Terna<에> (있었다) 왕은 니산 월에 바빌론으로

11 오지 않았다. Nabu는 바빌론에 오지 않았다. Bel은 나오지 않았다. 아키투 축제는 열리지 않았다.

12 그 제물들은 예사길과 에지다에서 평상시와 같이 <바빌론>과 보르시파의 신들(에게) 바쳐졌다.

13 니산 월 닷새째 되는 날 왕대비가 시파르로부터 상류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Dur-karashu에서

14 죽었다. 왕자와 그의 군대는 3일간 애도했(고) (공식적인) 애도기간이 있었다. 시반 월에는 아카드에서

15 왕대비를 위한 (공식적인) 애도기간이 있었다.

15 니산월에 Parsu의 왕, 고레스(2세)는 군대를 이끌고

16 아르바일 아래의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이야르 달에 리[디아]까지 [행군했다].

17 그는 그곳의 왕을 물리치고 소유물을 빼앗고, (그리고) 그의 경비대를 (그곳에) 주둔시켰다[...]

18 그 후 왕과 그의 주둔군이 그 안에 있었다([...])⁵⁾

따라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제로 바빌론에서 공동 섭정권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다음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 본문은 나보니두스가 Terna원정을 시작할 때 그의 실제 왕위를 벨사살에게 맡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해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나보니두스)는 그의 맏(아들)에게 "Camp"를 맡겼다

그것은 그의 (명령) 하에 그가 부리는 전국 각지의 군대이다.

그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왕권을 그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아카드의 (군사)전력이 그와 함께 행진하고,

그는 서쪽 (깊숙한 곳)에 있는 Terna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먼 (지방)으로 (향하는) 길로 원정을 시작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투에서 Terna의 왕자를 죽였다

성읍(뿐 아니라) 시골에 사는 자들의 무리를 죽였고

그 자신은 [Te]ma에 거처를 취했고 아카드의 군대 [또한] 그곳에 [주둔했다].

그는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곳에) [그의 궁전을] 지었다

Su.an.na(바빌론)의 궁전처럼, 그는 [성벽] (또한) 지었다.

도시의 요새를 (위해서) 그리고 [...].

그는 보초병들로 마을을 에워쌌다[...].⁶⁾

이 구절은 나부나이드가 Tema로의 원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제국의 지배를 나누어 벨사살에게 실질적인 왕권을 위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마 아라비아에서 었을 원거리 작전을 벌여 Tema를 정복했고, 그곳에 그의 거처를 정하고 바빌론의 영광으로 그 도시를 건설했다.

확실히 학자들은 나부나이드의 아들인 벨사살이 다니엘 5장의 벨사살이 되는 인상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성서의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왕이 미쳐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다. 다니엘 5:11, 18 그리고 바루크 1:11-12는 위와 같이 이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두 명의 벨사살을 구분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다니엘 서에 대해 불필요한 연대기적 문제가 생겨났다. 나부나이드의 아들인 벨사살의 공동 섭정은 기원전 540년 에 종료된 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기원전 574년에 메디아인들에 의해 살해당했고(다니엘 5:30) 이는 35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나보니두스 17년(기원전 540년)에 있었던 고레스 대왕에 의한 바빌론 유수를 말한다. 바빌로니아 출처의 어떠한 문서도 페르시아인 고레스가 위대한 성읍을 포위할 때 바빌론이 몰락하는 시점에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단언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바빌로니아 왕의 죽음 뿐 아니라 바빌론 유수 후 Guti 총독 Ugbaru의 죽음 또한 기록되어 있고 나보니두스의 부인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하라. 고레스에 의해 일어난 바빌론 유수는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잘 보존되어 있다. (연대기 7.iii.12-23)--

12 티슈리 달에 고레스(2세)가 티그리스 [강둑]의 오피스에서

13 아카드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을 때 아카드인들은

14 후퇴하였다. 그는 쟁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륙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시파르는 전투를 치르지도 않고 붙잡혔다.

15 나보니두스는 도망쳤다. 열 여섯째 되는 날 Guti의 총독 Ugbaru와 고레스(2세)의 군대는 전쟁없이

16 바빌론에 입성했다.

- 16 나보니두스가 퇴각한 후 그는 바빌론에서 붙잡혔다. 그 달 말까지
- 17 Guti의 군대를 거느린 방패가 아사길의 성문을 에워쌌다. (그러나)
- 17 아사길이나 (다른) 성전에서는 (의식의) 중단이
- 18 없었고 수행 날짜도 놓치지 않았다. 마르체스반 월 셋째 날에 고레스(2세)는 바빌론으로 들어갔다.
- 19 ...가 그의 앞에 가득 차 있었다.
- 20 고레스(2세)가 그가 바빌론의 지방 관리직으로 임명한 모든 그의 지방 관료인 Gubaru에게
- 19 (그가) 인사하는 동안 그 도시에는 평화가 있었다.
- 21 기슬루 월에서 아달월 까지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으로 데려갔던 아카드의 신들이
- 22 제자리로 돌아왔다. 마르체스반 월 11일 밤에 Ugbaru가 죽었다. [...]월에
- 23 왕의 아내가 죽었다. 아달월 27일부터 니산월 3일까지 아카드에는 (공식적인) 애도기간이 [있었다]. 7)

바빌로니아 연대기(연대기 7)는 메디아사람 다리오를 언급하지 않으며 다니엘 5장은 고레스 대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는 두 개의 다른 사건과 다른 두 명의 벨사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경과 바빌로니아 문서들이 세 부사항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과 그리스 역사가자들(헤로도투스, 크세노폰) 모두 바빌론의 몰락을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들과 두 명의 다른 벨사살을 인식할 가능성 없이 데이터가 동시성을 띄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것은 메디아사람 다리오의 신원확인과 함께 3장에서 완벽히 다루고 있다.

C. 다니엘서의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아니다

- 1). 그는 느부갓네살의 광기에 대해 직접 알고 있었다.
- 2). 요세푸스의 연대기적 시간 범위는 그의 통치기간과 일치한다.
- 3). 그의 통치기간은 그의 아버지의 해결되지 않은 통치기간 7년과 들어맞는다.
- 4). 그의 통치기간은 아스티아게스/ 메디아사람 다리오의 것과 일치한다.
- 5). 그는 시리아인이 아닌 바빌로니아인이었다.
- 6). 느부갓네살의 왕조는 그의 아들(벨사살)과 손자(에월므로닥)를 거쳐 계속 되는 것이었다.
- 7). 메디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 전에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원전 540년에 메디아인이 통치한 적은 없었다.

1) 다니엘 7장에서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은 다음 왕국을 나타낸다.

- 바빌론 —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발과 마음을 가진 사자
- 메대 페르시아 — 한 쪽 어깨를 들었고 입 속에 세 갈빗대를 물고있는 곰
- 그리스 —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인 표범
- 로마 — 쇠로 된 이가 있고 뿔 사이에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무서운, 이름모를 짐승

2)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을 상징했다. 높은 뿔은 메디아를 상징하고, 거친 염소는 Grecia의 왕을 상징하고,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이다(다니엘 8:20-21)

3) H. Freedman & Maurice Simon, 편집, *미드라쉬 랍바*, 4권 (런던: The Soncino Press, 1977), pp. 147-148.

4) 미드라쉬 랍바의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랍비들에 의하면 고레스보다 먼저 통치했던 메디아인들 (다니엘 VI,1)," *앞서 언급한 책에서*, p. 148.

5) A.K. Grayson,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연대기*," (이하 ABC로 줄임), A. Leo Oppenheim, 등., 편집., *설명문자 자료 문헌*, 5권 (로커스트 벨리, 뉴욕: J. J. Augustin Publisher, 1975), pp. 107-108.

6) *ANET*, pp. 313-314.

7) Grayson, *ABC*, pp. 109-111.